광주 방문 국내 여행객 만족도 높아졌다

문체부 '2015 실태조사' … 전국 5위로 6단계 상승

가족여행 재방문 의향 2위… 문화전당 개관 등 효과

지난해 광주를 방문한 국내 여행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2015 국민여행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국민(약 4300만명)중 약 87.9%가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여행 경험률인 86.3%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관광여행 전반적 만족도에서 광주시는 5점 만점 기준 4.10점으로 전국에서 5위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에는 3.96점으로 전국 11위로, 6단계 뛰어 올랐다.

광주여행 재방문 의향에서도 가족여행의 경우 4.10으로 제주도에 이어 전국 2위, 개인여행의 경우는 4.03으로 전국 6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주 관광여행 만족도와 재방문 의향이 높았던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에 맞춰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대인예술야시장 등 광주시의 다양한 문화관광정책 추진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에 맞춰 '남도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관련 유관 기관·단체, 업계 등과 관광의 최접점 지역의 서비스 개선, 친절운동 전개, 관광안내체계 개선 등 수용태세 점검을 통해 관광환경을 크게 개선한 점도 여행객 만족도를 끌어올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송재식 시 관광진흥과장은 "관광객들이 남도의 맛과 멋, 흥, 정을 느끼면서 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광서비스 및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프로그램 개발과 음식관광 등을 테마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남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구 자원봉사자 5·18참배 광주와 대구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12일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특화산업 중심 R&D 허브 광주 이노비즈센터 개관

특화산업 중심 연구개발(R&D) 허브 역할을 할 광주 이노비즈센터가 개관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광주시는 12일 광주 북구 월출동 연구개발 특구에서 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중 두 번째로 설립된 광주 이노비즈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0층, 총넓이 1만4768㎡ 규모다. 국비 196억원, 시비 151억원 등 347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말 준공됐다.

센터 개관으로 연구개발 특구 내 분산된 연구기관, 기업 등을 집적화해 원스톱 지원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또 특구 내 기술사업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업 현장 규제·애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에는 현재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특허법인, 재단법인 광주지역사업평가원 등이 입주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와 미래창조과학부는 12일 오후 광주 연구개발특구에 조성된 광주이노비즈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지하시설물 GIS 최고 (주)이우티이씨 에너지밸리 나주혁신산단 새둥지

보성파워텍 이어 두번째 입주

국내 지하시설물 지리정보체계(GIS) 분야 최고 기술기업인 (주)이우티이씨가 에너지밸리 나주혁신산업단지에 새둥지를 텄다.

지난달 19일 첫 입주한 전력기자재 생산 전문업체 보성파워텍에 이어 두 번째로, 향후 나주혁신산단에 에너지 신산업 업체인 전기기자재 기업들의 입주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주)이우티이씨는 이날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벨리 나주혁신산단(면적 54만평)에서 나주공장 착공 기념식과 안전기원제를 열었다.

이날 착공식엔 주동식 전남도 일자리정책실장과 이기춘 나주시 부시장, 한전 김선관 에너지벨리 추진실장 등이 참석했다.

(주)이우티이씨는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예산 80억원을 투입, 배전기자재 제품 생산공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직원 50명을 고용하는 등 향후 나주공장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김평 (주)이우티이씨 사장은 "나주공장은 배전기자재 제조사업과 신기술 전력기자재 제조사업, 차세대 미래 성장동력인 '신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미래 기반 사업장"이라며 "나주공장을 기반으로 해외 글로벌 기업 도약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의회 농수산위, 홍도·흑산도 현장 활동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12일 신안 홍도·흑산도에서 자연재해 대비와 관련, 어항기반시설을 점검한 뒤 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수위는 이날 공사가 진행 중인 홍도항 동방파제 축조공사(2017년 10월 완공) 현장을 방문, 자연재해로 인해 접안선박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농수위는 또 다음달 준공을 앞둔 지상 2층 규모의 흑산도 여객선터미널(연면적 1169㎡)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가 섬 주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수위는 어항기반시설 점검을 마친 뒤 지역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섬 가꾸기 사업 등 섬 관광자원화 시책 추진으로 정착 인구 유이보가 주민 소득원이 다양해졌다"면서도 "하지만 어업인 등 기존 어민들의 지원이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효남 농수위원장은 "도의회 차원에서 섬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호 인근에 무등산생태문화공원 조성

150억원 들여 2017년까지

가사문학관 연계 탐방객 증가

국립공원 무등산 자락에 생태문화공원이 조성된다. 특히 광주호 호수생태원, 가사문학관 등과 인접해 있어 탐방객 증가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광주시는 12일 북구 충효동 광주호 인근 4만4000여㎡에 무등산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최근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무등산생태공원이 추가 조성되면서 역사, 문화, 수변 등 주제공원은 20곳으로 늘었다. 전체 면적은 265만3000여㎡다. 공원에는 무등산 생태체험관과 탐방교육관 등을 비롯해 광장, 테마식물원, 입석대 조형물 등 조경시설이 들어선다.

생태체험관은 무등산 국립공원에 서식하는 동·식물에 대한 전시·교육·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탐방교육관은 숙박하며 무등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 야외테이블, 반원형 파고라, 주차장, 음수대, 종합안내판 등 휴양·편의시설도 설치된다. 돌무더기와 볏짚·통나무 쌓기, 토양곤충 관찰대 등 탐방 관찰시설도 만들어진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상반기 중으로 이 공원 조성사업이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환경기준 부합성 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칠 계획이다.

무등산은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 자연유산 보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3년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탐방객도 지속해서 늘어 지난해 400만명을 돌파하고 한 해 탐방프로그램 참가자도 2만명을 넘고 있다.

이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지역사회와 국립공원을 연결하는 생태탐방체험의 거점시설 필요성에 따라 추진됐다.

한편 무등산에는 수달·구렁이·삵·독수리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8종과 원앙·두견이·새매·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 8종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동식물은 2296종으로 사적형인 경주국립공원을 제외한 육상 국립공원 16곳 중 13번째로 많다.

주상절리대·산봉·계곡·괴석 등 경관자원도 61곳이 있으며 특히 서석대와 입석대 등 주상절리대는 높이가 20~30m, 폭 40~120m에 달해 남한 최대규모로 꼽힌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과 광주호 등 생태문화를 자원으로 한 공원조성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이사장 안용훈 국장 내정

광주환경공단 6대 이사장에 안용훈 〈사진〉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이 내정됐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최근 안 국장을 차기 이사장으로 내정했다. 안 국장은 오는 27일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

임기는 3년이다.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환경공단은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장, 광주천 자연형 하천, 영산강 시설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이사장

/ 최권일기자 cki@